

18_8_한국어_皇子山古墳と周辺の遺跡

오지산 고분과 주변 유적

니시코리·오지가오카 지역은, 오쓰궁이 있었던 곳으로써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

그러나, 주변 발굴 조사 결과, 조몬 시대부터 사람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.

야요이 시대에서 고분 시대로 됨에 따라 유적의 수가 늘어, A.D.6 세기에서 7 세기에는, 우사산 산록 일대에는 도래계 씨족의 고분으로 보여지는 것이 30 기 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.

이 도래계 씨족들은 오쓰궁 천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.

이와 같이, 이 지역은 오쓰 시내에서도 귀중한 매장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.

우리들은 이 귀중한 문화 유산을 지키고 오래도록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.